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4월 11일 (월)

News

은행 대출 문턱, 총량규제 이전 수준까지 완화 — 데일리안

하나은행, 12일 오후 5시 이후 대출 신청 접수부분부터 신용대출상품 하나원큐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올려…
가계부채 규제 도입 전 수준까지 회복… 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에 금리 낮춰 고객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

금리 올라도 못 웃는 은행들… '수익 바로미터' 대출실적 내리막 — 파이낸셜뉴스

국내 4대 금융지주, 이달 20일부터 1~4분기 실적 발표 예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마진 개선될 전망…
다만 가계대출 감소세에 이자를 전격적으로 낮추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 악화 우려도 제기…예금성 자금은 증가… 금리인상과 코로나19로 기업대출 역량 강화도 쉽지 않아…

가계대출 부실 우려… 변동금리 대출 어려워진다 —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은행 포함 금융권에 대한 대출 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지도에 나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높이는 것
올해 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로 늘려야…작년 목표치 50%에서 2.5%p 상향 조정… 지난 4일부터 1년간 지속 예정

인수위, DSR에 전세대출 포함 검토 — 파이낸셜뉴스

인수위원회, DSR을 전세대출에 포함시키는 방안 두고 고심… DSR 규제 완화하되, 전세대출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 작년 7월 DSR 규제 강화조치 실행 이후 다소 꺾이는 추세… 현재 대출 필요 가구와 필요금액 모두 증가한 상황

다음주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영업용은 인상 — 조선비즈

삼성화재,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2% 인하… 영업용은 3% 정도 올려…
현대해상,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각각 1.2%와 0.8% 인하… 영업용은 3% 인상…메리츠화재, 개인용을 21일부터 1.3% 인하

생보사, 운용자산이익률 지지부진…여전히 3%대 초반 — 미디어펜

올 1월 말 기준 국내 23개 생보사 운용자산이익률은 3.2%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운용자산이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AIA 생명… 4.2%로 유일한 4% 기록
삼성생명 3.1%, 한화생명 3.5%, 교보생명 3.6%...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다만 여전히 2~3%대 유지하는 곳도 있어 역마진 우려

'라임·옵티머스 극복'…증권사 '개인펀드 판매고' 회복 성공 — 아시아투데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 33개 증권사의 개인 대상 펀드판매 잔액 총 42조 552억원으로 집계…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한 규모
작년 말부터 미국 테이퍼링 우려와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경기 악화 우려 등이 겹쳐 증시 변동성 확대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시장으로 회귀

증권사들 서학개미 쟁탈전…시차 장벽도 무너뜨린다 — 한국금융신문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 21년 외화증권 거래대금 총합 424조 5,368억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117% 급증한 수치… 1위는 키움증권으로 135조 8,838억원
수탁수수료 측면에서는 삼성증권이 1위… 총 1,676억원으로 전년대비 44.2% 증가한 수치… 정규장 이외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확대 등 사활 건 경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